

# 미술 체험·이주민 문화 접견... 광양, 예술로 물들다

'2024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 성료  
도립미술관 야외 시민광장 일원  
'다문화 페스티벌 이팔(=)' 등 호응  
3000여 명 방문해 예술 프로그램

광양의 전남도립미술관 야외 시민광장 일대가 지난 주말 다문화를 체험하고 이주민들의 예술을 접견하는 공간으로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 2~3일 아이들의 예술성 향상을 위해 체험활동 등을 접목한 '2024 JMA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과 '다문화 페스티벌 이팔(=)'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틀간 열린 행사에 3000여명의 도민이 방문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인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추진됐다. 예술적 탐구 및 창의적인 경험을 위한 '어린이 미술대회',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이 진행됐고 '몽상 블라주' 전시에 맞춰 연계 행사로 '다문화

페스티벌 이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먼저 2일 열린 '2024 JMA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은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전남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해 예술적 상상을 도화지에 펼쳤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별로 2개의 부문(스페셜상, 참가상) 총 27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전남도립미술관과 협약기관인 LF스퀘어 광양점에 전시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날 예술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미술관을 찾아온 관람객들의 표정을 그리는 '얼굴 방명록' △종이집 위에 나만의 그림으로 집을 완성해 가는 '드로잉 하우스' △플라스틱 와인잔에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색다른 컵을 만드는 '와인잔 드로

잉' 등을 운영해 어린이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공연도 3회 운영됐다. 어린이 동요를 국악으로 재해석한 루트머지의 '어린이 국악 공연',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춰 동화를 들려주는 극단 도깨비의 '인형극', 국제 미술 대회 수상팀 엘비스매직의 '마술쇼' 등이 펼쳐지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3일 개최된 '다문화 페스티벌 이팔(=)'은 '모두 다르지 않다'라는 주

제를 통해 각자의 문화가 융합되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전남도립미술관 야외에 몽골,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네팔의 6개국 부스에서 각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현지의 이주민들이 각 나라의 고유 음식을 알리고, 문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민들의 전통상을 직접 입어보고 한복과는 다른 재질, 색감, 디자인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전통상을 입은 이주민의 공연도 열렸다.

또 플라마켓에서는 공정무역상품, 제로웨이스트 상품 등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친환경적 사고가 접목된 다양한 상품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예술을 선보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대한 예술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문화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ACC, 14일 '필름&비디오 포럼' 개최

'ACC는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가'  
문화전당 극장3서 공개 토론  
영화·시각·예술 전문가 7인 참여  
♣ 실험영화 등 연구 가치 맥락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4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ACC 필름 & 비디오 포럼-ACC는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가: 익스팬디드? 미디어적 전회?'를 개최한다.

'익스팬디드(Expanded)'는 영화의 본질 탐구와 실험을 지향하고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 장르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확장 영화'의 실천을 의미한다. '미디어적 전회(Mediatic turn)'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별 간 접촉뿐 아니라 전 지구적 의사소통 과정 등 인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상 미디어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촉발된 변혁을 뜻한다.

이번 'ACC 필름&비디오' 포럼은 영화의 확장된 감각(익스팬디드)을 분석하고 세계를 달리 표현하는 수단(미디어적 전회)으로서 일상 공간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살피며 아시아 영화 예술의 미래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광영빈 예술매체학자,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은희 큐레이터, 김지훈 중앙대학교 교수, 서현석 연세대학교 교수, 신은실 영화평론가, 유운성 영화평론가가 참여해 ACC의 아시아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에 관한 연구 가치를 재맥락화하고 스크린을 둘러싼 새로운 지형을 탐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발제와 종합 토론 내용들은 추후 자료집과 ACC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또 내년 10주년을 맞이



하는 ACC의 '실험영화 랩' 전시의 콘텐츠로도 각색해 선보일 예정이다.

ACC는 지난 9년간 아시아의 서사를 매개하는 매체로 영화에 주목해 왔다.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영화 상영 프로그램 'ACC 시네마테크'에서는 아시아가 함께 일궈온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표방하는 아시아의 영화를 꾸준히 소개해 왔으며, 영화적 역량과 표현 가능성을 직접 실험하고 지원하는 '실험영화 랩'을 운영하면서 영화 예술의 미래와 가치를 모색했다.

공개 토론의 장인 'ACC 필름&비디오'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강현 ACC 전담장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가 이번 포럼을 통해 영화 실험과 연구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문화예술 선도 기관으로서 아시아 영화 가치를 국내외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 예술향유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문화동행'

광주문화재단 메세나사업 일환  
지난 1일 무등음악원서 1회 공연  
2회 공연 7일 북구 장애인복지관  
길놀이·풍물놀이·국악트롯 등 마련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내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을 2회에 걸쳐 개최한다.

'찾아가는 문화동행'은 광주문화메세나운동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주식회사 신한은행, 양지회계법인의 지정기부를 받아 진행된다.

지난 1일 오후 7시 무등음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은 동구 관내 4곳의 아동복지시설(무등음악원, 광주영신원, 사회복지법인 일맥원, 광주성빈여사)의 유아 및 초등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방송댄스, 마술, 캐릭터 탈 공연 등을 선보인 가운데 성료됐다.

공연을 관람한 정은강 무등음악원장은 "정서발달에 좋은 문화관람의 기회가 아이들에게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난 1일 무등음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 광주문화재단 제공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회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은 7일 오전 10시30분 북구 동림동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며, 관람객의 주 연령층인 60대 이상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길놀이 및 풍물놀이(타악그룹 일수)와 한국무용(바오무용단), 국악트롯(이슬비), 트롯(전자국악단 가락) 등으로 구성돼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 기자

## 영화 OST 세계로 ... 이병우 '기타, 영화를 만나다'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26일 오전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의 올해 마지막 공연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기타리스트이자 영화음악가 이병우의 무대로 열린다.

이병우 음악가는 멀티 기타 플레이어이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1호로 조동익과 함께 1980년대 전설적인 포크 듀오 어떤날로 데뷔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 클래식 기타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존

스홉킨스 피바디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수학했다.

팝, 재즈, 블루스, 록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을 결합한 작품을 작곡, 연주하는 그는 영화음악가로서도 입지가 굳다. '왕의 남자', '마더', '해운대', '관상' '국제시장' 등 30여편의 영화음악을 작업하며 제27회 청룡영화상 음악상(2006), 제18회 부일영화상 음악상(2009) 등을 수상하며 영화 음악계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11시 음악산책'에서는 '기타, 영화를 만나다'란 주제로 영화 '스캔들-남

녀상열지사', '왕의 남자', '마더', '장화홍련', '괴물' 등의 OST를 영상과 연주, 이야기로 나눌 예정이다. KBS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의 이상협 아나운서 진행으로 기타 이병우, 바이올린 이호준, 최지은, 비올라 조재현, 첼로 정광준, 더블베이스 김만기가 스트링 선율의 감동을 전한다.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https://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러닝타임 90분, 초등학생 관람가. 박찬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